

한국전쟁 피난민 恨 위로의 장 마련

부산 선암사, 10월 31일 '제1회 백양산 어울림터 한마당'

부산 당감동 지역은 1950년대부터 30년 간 화장장을 운영했던 지역이다. 화장을 하고 난 후 대부분의 부산 지역민들은 당감동을 품고 있는 백양산 자락에 유골을 뿌리곤 했다.

한국 전쟁을 겪은 이 후 어려웠던 시대적 상황에 화장터를 이용한 대부분의 부산 시민들은 피난민들로 뼈 아픈 한을 간직하고 있다. 백양산은 그 시대적 상황과 피난민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소다.

이곳을 위로하기 위해 부산 선암사(주지 원범)가 나선다. 선암사는 부산 시민과 함께 하는 '제1회 백양산 어울림터 한마당'을 10월 31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한다. 행사는 식전 의식으로 천도식과 육법 공양으로 시작해 조계종 원로의원 정관 스님(영주암 회주)의 추모 법어로 법요식이 마련된다. 이어 살풀이, 극락무, 염불, 바라춤 등 위령재를 봉행 한 후 백양산 영가와 인연이 있는 모든 시민들이 화환하고 향을 직접 올리는 시간이 준비된다.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은 10월 14일 선암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서 "부산에 있는 대부분의 시민은 화장터와 인연이 있다. 어려웠던 그 시대 당시 죽음을 맞이한 친인척은 여기에 위치했던 화장터에서 마

지막 인사를 나누곤 했다"며 "백양산에 뿌려진 영혼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유주 무주 합동영혼위령 천도재를 지내므로 부산의 시민들을 위로하고 그 때 당시의 아픔을 안아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스님은 또한 40년 전 당감동 화장터를 찾은 인연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1974년 당시 17세를 넘긴 어린 사미승이 못에

30년간 화장장 유골 뿌려진 곳 추모 법요식 및 위령재 봉행 예정 "원효 화쟁 기간, 문화행사 지속"

들어갔다 심장 마비로 사망해 장례 절차를 밟기 위해 처음으로 당감동 화장터에 온 적이 있다고 했다.

당시 19세였던 스님은 이곳을 통곡의 장소였다고 기억했다.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한 어린 아이, 자살한 여인, 기계에 몸이 끼여 죽은 노동자, 군인 등 수많은 운구가 줄을 이었다. 검은 연기로 뒤덮인 백양산 가운데에는 고통 받는 중생들을 깨닫듯 선암사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다. 스님은 그



'제1회 백양산 어울림터 한마당'의 개최 일정을 소개하는 원범 스님

장면을 잊지 못한다고 전했다. 스님은 "그 후 30년이 지나 2004년에 이곳 선암사에 주지 임명장을 받고 오게 됐다. 그리고 조건을 갖추게 되면 꼭 지역민들을 위한 천도재를 지내야겠다고 목표를 세웠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번이 이루어 졌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종교와 관련 없이 백양산과 인연이 있는 모든 부산 시민들을 위해 마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범 스님은 "이번 행사에 부 제목을 보면 '인연영혼'이란 말이 들어간다. 영혼이란 말을 불교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지역 시민들이 보고 친숙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기했다"며 "또한 제목 가운데

'어울림터'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음악회 및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함께 마련해 더욱 풍성한 행사를 준비할 계획을 담은 것이다"고 전했다.

스님은 "현재 참석할 인원이 2000여명이 넘는다고 하며 "이를 위해 순환버스를 운행하며 오신 모든 분들이 안전 할 수 있도록 민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 백양산 선암사는 1340여년 전 원효 스님이 창건한 천년 고찰로 이번 행사는 원효 스님의 화쟁 사상을 근간을 하고 있다. 선암사는 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천년 고찰 중 하나이다.

하성미 기자

불국사 제42회 신라불교 영산대재 봉행

경주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은 10월 9일 경내 앞마당에서 제 42회 신라불교문화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영산대재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 등 2000여 대중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불국사 문화회관 선차반의 육법공양례와 함께 헌화 및 법어, 영산재의식 등이 진행됐다. 특히, 무형문화재 이수자 종우 스님 외 8명의 스님이 직접 패불봉정 영가천도식을 진행했다.

회주 성타 스님은 "찬란한 신라문화와 삼국통일 정신을 이어 한민족 정체성 회복과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통일염원과 미래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신라의 거룩한 모든 성가자를 모시고 찬탄하는 의식이 영산대재"라고 소개했다.

관장 종상스님은 "위대한분의 자취에

손문철 대구지사장



서 이 땅의 문화유산을 부처님의 영상에 성사님의 훌륭한 업적을 기려, 불국경토와 모든 중생들의 자유와 편안함의 나날이 되길 발원하며 봉행제문을 올린다"고 했다.

한편, 2부에는 예술제가 참석한 많은 불자와 관광객들과 함께하여 가을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사명대사 열반 제405주기 추모대재

부산불교연맹회(회장 수불)는 10월 8일 부산 초읍 부산어린이대공원 내, 사명호국광장에서 부산불교연맹회 회장 수불 스님, 수석 부회장 무원 스님, 상임 부회장 효원 정사, 부산불교연합심도회 회장 이윤희 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명대사 열반 제405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회장 수불 스님은 "사명대사는 오늘 우리에게 국난을 극복하신 선조들의 호국애민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 준다"며 "사명대사의 결연한 호국의지를 본받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도록 민관군이 합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심도회장은 "대림과 같듯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공심·공체·공생의 화쟁정신 살리자"

경주 분황사 원효예술제 10월 10일 개최... 500여 대중 모여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은 "세계화합을 위해 모든 생명체가 공심·공체·공생으로 하나되며, 원효 스님의 화쟁정신으로 중생제도에 나서자"고 발원했다.

회주 성타 스님도 "너와 나, 우주의 생명체가 하나임을 가르치신 원효 스님의 일심 화쟁정신으로 우주적인 삶을 살아가자"고 법문했다.

이어 최양식 경주시장, 권영달 시의장, 이평래 원효학연구원장의 추모사와 선재 소녀합창단 이시연 학생의 원효성사 추모시 낭독이 진행됐다.

2부 예술제에서는 명상음악가 홍순지 씨와 관 무용단, 선재어린이 합창단 등이 아름다운 선율과 율동으로 분황사를 찾은 불자와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한때를 선사했다.

경주 분황사 주지 성호 스님은 "분황사는 원효 스님이 출가 후 주석하며 많은 저술을 남긴 곳으로 봄에는 제향대재를 가을에는 원효예술제를 열고 화쟁사상을 선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부산 생명나눔, '함께 걸으며 희망 세상'

생명 사랑, 희망 가득한 세상을 위해 부산 시민들이 함께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부산본부(본부장 원범)는 10월 10일 '제7회 생명나눔 걷기 대회'를 부산 시민공원에서 개최했다. 1000여명의 부산 시민들은 주말을 맞아 뜻 깊은 행사에 참가할 수 있어 기쁘다며 긍정적인 반응으로 무대 행사와 걷기 대회에 적극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시선원 K-MBSR 기초교육 9기 모집

부산 해운대 명상교육 전문도량 시선원(지도법사 우현)은 K-MBSR 기초교육 제9기를 모집한다. 강의는 10월 31일~12월 12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강의는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론교육은 △K-MBSR 명상의 이해 △심신의학기본원리 △스트레스와 심신의학 △스트레스관리와 대처법 △명상치

유의 과학적 원리 △시금 이순간과 함께하기 △명상실습과 심신이완법 △바디스캔 △호흡명상 △자아명상 △마음챙김 명상 등이 있다. 실습교육은 △공식명상(바디스캔, 호흡명상, 정좌명상, 하타요가) △비공식명상(먹기명상, 걷기명상, 자아명상, 용서명상), 수련 후 질의응답이다. (051)746-7611

하성미 기자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 성료

전국의 청소년 합창부가 모여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열렸다.

(사)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는 창립 19주년을 기념하며 제8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를 10월 1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개최했다.

합창제에는 지도위원 목종 스님(대명명사 주지), 하림 스님(미타선원 주지) 및 부산 파라미터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전 부산시의회의장, 김석준 교육감 및 참가자 5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백명숙 협회장은 "8회를 맞는 파라미터 청소년 합창제가 청소년 여러분의 멋진 삶에 행복한 추억을 선사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유난히 번쩍스러운 날씨로 연습이 무척 힘들었음은 모든 참가자



들에게 감사한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날 대상은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산정합창단, 금상은 진해여자중학교, 송곡여자고등학교에게 각각 돌아갔다. 은상은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김해여자중학교이며 동상은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 안선고등학교, 원곡중학교가 받았다.

하성미 기자

대한민국 새로운 장례문화 화분장묘 분재공원

한국최초 특허받은 장례묘(화분장)! 특허 제10-1467668호

사찰 더 이상의 불사금 조성은 어렵습니다. 이젠 불자를 위하여 주고받으십시오

화분장이란? 연꽃좌대화분에 주목나무를 심고 나무아래 유골을 안치하여 분재공원을 조성하는 신 장묘법.

장점

- ◆ 이장, 개장의 법적 번거로움이 없다.
- ◆ 1기의 화분장은 가족모두 신도화
- ◆ 사찰분재공원 조성은 신도 활성화
- ◆ 상조회사, 지역장례식장, 신도가족의 영접방안
- ◆ 사찰부지 300평기준 : 200기 이상화분장묘 설치 약 10억원 불사조성
- ◆ 현 수목장 비용 300 ~ 500만원
- ◆ 1기화분장묘 안치시, 유가족 전체 개인등,영가등,천도재 기타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에서 아래와같이 전국 각지역총판을 모집 합니다. 많은관심바랍니다.

자격조건

전국 사찰 및 교회 중사자분들과 개인토지보유 자분(임야/개발제한구역임야 제외) 동지(전/담 보유신분) 우선권함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 지역의 사업주님들을 상담환영합니다.

각지역모집구역 소개

서울 | 부산(성남 회)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북도(일부) | 경남(성남 회) | 제주도 | 대구 | 울산

한국 화분장 장례문화연구소 회장: 서정용 | 대표이사(특허등록자): 김성만

◆ 본사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47, 2109호 (역삼동, 성지하이츠 2차빌딩) ◆ 홈페이지: www.화분장.kr / www.화분장.net

연락처: 서울본사 02)555-4452 / H·P 010-8911-4452

능인 로즈마리 능인 라벤더

로즈마리는 향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료,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약 14cm (연소시간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능인 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리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 (장, 단)

· 규격: 장 (24.5cm) 약 1시간 10분 / 단 (14cm) 약 45분

연소시간은 피우시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문: 현대불교 헌불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